

대중성 성공 했지만 예술성 다소 난해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폐막...월 남겼다

행사기간 늘고 신작 많은건 긍정적
광주만의 행사 아닌 외연확대 기여
개막 공연 지루하고 내용 몰라 당황
철학-과학기술 융합 일반인 접근 어려워



'2018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7일 막을 내렸다. 모리스 베나운 작품 관람을 기다리는 관람객들. <광주문화재단 제공>

2018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약 8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지난 7일 막을 내렸다. 주 전시관이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2관과 미디어월 4500명을 비롯해 서울미디어캔버스 2000여명, 부산영화의 전당 1500명 등이 전시기간 동안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작품을 관람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국내의 작가 7개국 8개 도시 61명이 참가해 '알고리즘 사이어터: 기계-신의 탄생'을 주제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문제점을 미디어아트로 풀어냈다.

이번 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는 대중성과 예술성(전문성)에 대해 엇갈렸다.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국면을 잘 보여주고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개최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한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기존의 LED 등 빛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의 편견을 깨고 다른 측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기계와 예술의 만남을 통해 현대사회의 모습을 시각적 효과를 통해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소 난해하다는 목소리 또한 있었다. 특히 개막식에서 태식그룹의 개막공연이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 당황스러웠다는 후문이다. 또한 철학적 사유와 과학 기술의 융합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분

석도 따랐다.

이번 페스티벌은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었다. 기간이 예년의 3일에서 10일로 연장된 점, 장소가 광주전변과 빛고을시민문화관 주차장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옮겨진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참여작가가 전시주제와 전시장에 맞춰 초대된 데다 신작이 70여점에 이른 것은 긍정적 인 부분이다. 광주라는 지역과 공간성이 미디어아트라는 옷을 입고 관람객들에게 새롭게 어필했다는 의미다.

전남대 디아스포라학과 김영술 교수는 "이번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현대사회 문제와 광주 이야기를 과학 기술, 예술의 융합을 통해 광주의 브랜드를 보여준 전시였다"며 "그동안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문화예술의 광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연동전시를 통해 서울 미디어캔버스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영상작품을 한달여(11월21일부터 12월

19일) 간 계속 상영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광주만의 행사가 아닌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외연확대를 기했다는 평가다. SNS를 통한 홍보, 특히 청춘남녀의 데이트 코스로 알려진 것은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젊은층에게 친숙한 문화행사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열린 미디어아트정책포럼도 주목을 받았다. 포럼에서는 알고리즘사회와 미래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디어를 통한 인간다운 가치 창조, 광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거점과 플랫폼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 감사하다. 내년에도 더 좋은 주제와 작품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062-670-797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신기록'

청룡영화상 단편상 '신기록' 다시 만난다

13일 '페미니즘 산책' 허지은·이경호 감독과 대화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신기록'의 허지은·이경호 감독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여성영화제는 '페미니즘 영화 인문학 산책2'의 에필로그 행사를 오는 13일 오후 7시 동구 서석동 광주독립영화관GIFT에서 연다. 여성영화제는 지난 8-9월 여성영화를 함께 보며 성평등 사

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페미니즘 영화 인문학 산책2'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허지은·이경호 감독을 초청해 '광주에서 여성영화를 만든다'는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이날 가정폭력을 다룬 '신기록'(23분)과 더불어 허지은 감독이 연출한 8회 광주여성영화제 폐막작 '돌아가는 길'(24분)과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오늘의 자리'(18분) 등 3편이 상영된다. 무료 관람. 문의 062-515-656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소설가협회 동인지 출판기념회 열려

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조성현) 동인지 '블랙 시베리아'(심미안) 출판기념회를 겸한 총회가 최근 시내 모처에서 열렸다. 이번 동인지품집에는 김용매('잠복기'), 박이수('전망 좋은 집'), 박태정('울타리'), 서용좌('시베리아 아임 블라디보스토크'), 송은유('블랙'), 심영의('사소한 일들'), 양관수('아바타 시티'), 이연초('스모킹 파티'), 임미나

('벼꽃'), 전용호('오리발잡전기') 작가의 작품이 실렸다. 1부에서는 회장 인사말을 비롯 동인지 제13집 발간 경위와 참석자 소개, 집행부 1년 정산 보고 등이 있었다. 2부에서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차기 회장에도 조성현 작가를 선임해, 회장은 2년간 광주전남소설가협회 회장직을 맡게 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송년의 아쉬움 오페라 아리아와 함께 하세요 영화 속 오페라 좋아 하세요

광주시향 송년음악회
14일 문예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동원

감미로운 오페라 아리아와 함께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시립교향악단의 '2018년 송년음악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홍재 시향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은 토마의 오페라 '레이몬드'의 서곡과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의 주요 음악들로 채워진다. 시향은 푸치니의 대표작 '나비부인' 중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어느 개인 날', '잘 있거라, 꽃피는 사랑의 집', '저녁이 온다네'를 소프라노 김유섬과 테너 김동원과 협연한다. 마리오델모나코 국제 콩쿠르에서 2회 연속 우승한 김유섬은 독일 본 오페라단에서 정식 주역가수로 활동하던 창원오페라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창원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테너 김동원은 2010년부터 독일 카셀국립극장 전속 주역 가수로 활동했고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음악대상'에서 '올해의 성악가'로 뽑혔다. 2부는 비제의 '아들의 여인 모음곡 2번'으로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작곡가 르로이 앤더슨의 신나는 곡들로 연말 분위기를 돋운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빛소리오페라단 연주회
12일 광주아트홀



영화 '파리넬리'

영화에 나온 오페라 아리아를 쉽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사)빛소리오페라단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동구 황금동 광주아트홀에서 '영화 속 아리아를 좋아하세요?' 공연을 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미애가 해설자로 나서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인다. 먼저 소프라노 박미애가 영화 '파리넬리'에 등장한 오페라 '리날도' 중 '올케 하소서'로 무대를 연다. 이어 바리톤 김대수가 한국 영화 '편지'에 삽입된 오페라 '세르세' 중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를 중후한 음색으로 전한다. 소프라노 윤희정과 장희정은 여성 2중창으로 유명한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벚노래'로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또

영화 '소생' 탈출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 이중창'으로 화음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베르디의 오페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전석 2만원. 문의 062-227-744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남 출신 이보영 시인 내일 인문학 콘서트

금남로 4가역 지하예술무대

"기난도 행복으로 부화되던 어린 시절 / 좁은 고갯길은 나만의 사랑터였다 / 얽히면 참 편안했던 아버지의 넓은 등 // (중략) // 앞생애도 사랑채도 시멘트로 길이 나고 / 골목 어디에도 그 말쑥은 이제 없다 / 따뜻한 아버지 유산 환청으로 들려온다. ('아버지의 유산' 중) 해남 출신 이보영 시인이 오는 11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지하예술무대에서 인문학콘서트를 연다.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시 동구문화원이 주관한다.

이번 콘서트에서 이 시인은 이번 인문학콘서트에서 아버지와 추억을 매개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부성의 의미 등을 다채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 시인은 "아버지는 늘 한 번 내 뺐은 말은 다시는 주어 담을 수 없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고 했다"며 "아버지는 내 삶의 버팀목이자 시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인은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부회장과 전남문인협회 여성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시조세계 신인상, 전남문학상, 무등시조문학상, 국제PEN문학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시집 '물소리가 길을 뿜 때', '나직한 목소리'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